



2022. 12. 16 (금)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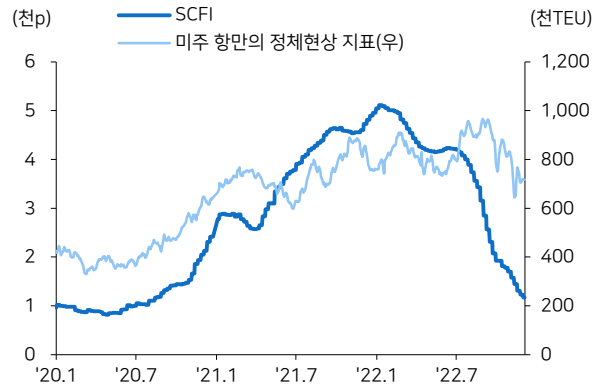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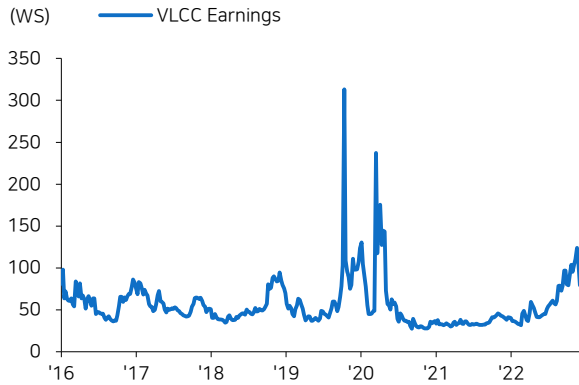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28.0p(+12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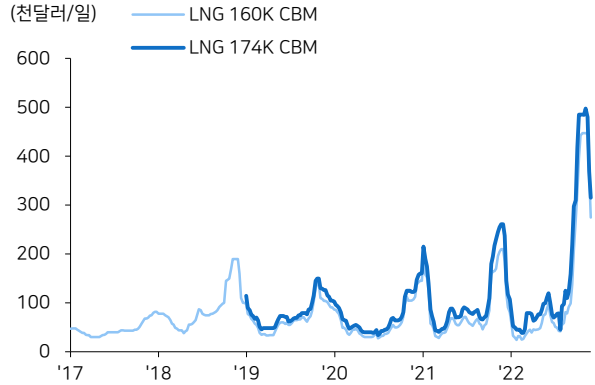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38.1p(-33.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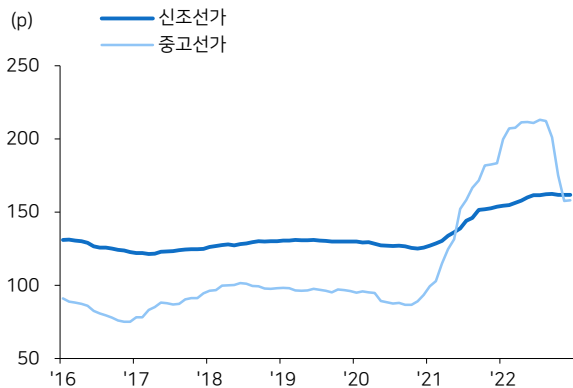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2p(+2.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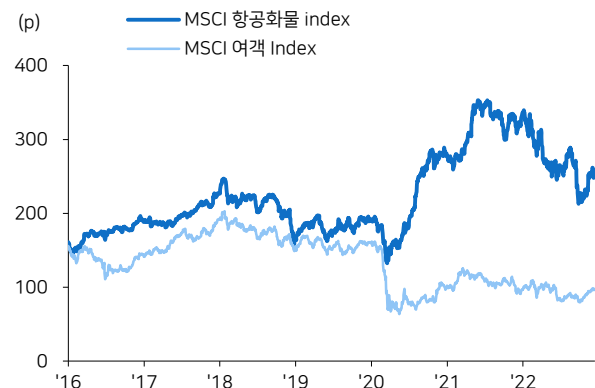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201.3p(-73.8p WoW)  
280.0p(-35.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6p(-0.1p WoW)  
157.9p(+0.2p WoW)



항공시장 지표 258.2p(+0.9p DoD)  
97.4p(+0.6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한국조선해양, STX중공업 예비 입찰 참여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한 4~5곳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STX중공업 예비입찰에 참여했다고 보도됨.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는 STX중공업을 인수한지 4년만에 지분 47.81% 매각작업에 나섰다고 알려짐. 한국조선해양 등 원매자들은 다음주부터 8주간 실사에 돌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23년 2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언급됨. 매각 측은 2023년 1분기 주식매매계약(SPA)까지 마친다는 계획임. 한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들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짐. (머니투데이)

### Port of LA may have 'very soft' February and March after long Chinese New Year, ONE CEO says

ONE CEO에 따르면, 긴 중국 춘절연휴로 오는 2월 LA항이 한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됨. 아시아 공장들은 통상 약 2주간 쉬었지만 오는 1월에는 최대 5주간의 연휴가 있을 것으로 알려짐. 2023년 춘절은 비교적 이른 1월 21일에 시작함. 계절성도 감안하면 미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4월말이 되어야 정상화될 것으로 언급함. 그러나 ONE CEO는 2021~2022년 물동량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함. (Tradewinds)

### Major offshore builders selected for Block B contest in Vietnam

베트남의 수십억달러규모 Block B 가스전 프로젝트 재입찰이 시작됐다고 보도됨. 입찰 접수는 2023년 3월초까지로 알려짐. 초청된 업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McDermott, Saipem과 PTSC-Malaysia Marine and Heavy Engineering임. 지난 입찰에서 최종 수주한 두 업체는 McDermott과 현대중공업이었음. 입찰결과 및 FID 결정은 2023년 7월초를 목표로 함. (Upstream)

### Saipem wins \$1.2 billion subsea contracts offshore Guyana and Egypt

이탈리아 Saipem이 총 12억달러규모 가이아나와 이집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가이아나의 Uaru 유전에서는 해저생산시스템(SURF) 생산 및 공급을 맡음. 2026년 FPSO를 통해 첫 생산될 예정임. 이집트 Zohr 프로젝트는 2023년 3분기에 시작될 예정임. (Upsteam)

### Keystone Pipeline partially reopens

Keystone 파이프라인이 가동중단 일주일 만에 일부 재개되었다고 보도됨. 약 2,600배럴의 석유가 회복되었다고 보도됨. 안전당국(PHMSA)의 허가없이 재가동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9년만에 무분규 타결

현대중공업 노사의 2022년 단체교섭이 연내 마무리되었다고 보도됨. 2013년 이후 9년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 이루어짐. 의견일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격려금 350만원, 상품권 50만원 등임. 한편,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도 앞서 의견일치안을 가결한 바 있음. (파이낸셜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